

# 인민중국의 대학도서관 발전사 개설

이 글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서관정보학회의 중진이며 현재 대련시 요령사범대학 도서관정보학과 주임교수인 單行교수가 「고교도서관정보학간」(高校圖書情報學刊) 1989년 3호에 기재한 글을 저자의 승인을 받아 다께우치교수(竹內愨: 도서관정보대학 부학장)가 번역하여 「도서관계」(圖書館界 Vol. 43 No. 4) 게재한 것을 김용원선생(일본학술정보센터)의 협조로 저자, 번역자, 저자권 소유자인 일본도서관학연구회의 허가를 받아 번역한 것임.

單 行(Shan, Xing)저  
김경일 역

중국 최초의 근대적인 대학도서관을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sup>1)</sup>의 장서루(藏書樓)로부터 헤아려보면 이미 8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만일 경사동문관(京師同文館) 서각(書閣)으로부터 계산해보면 120여년의 역사가 된다. 청조말기의 통계는 관립대학의 도서관(당시는 대부분 장서루 혹은 서각: 書閣 등으로 칭하였다)의 총수는 123개관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학도서관 사업은 오래동안 정체하여 발전하지 못하였다.

1912년에서 1929년에 이르는 동안 국민정부 교육총장(교육부장관)이 40여해나 바뀌었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의 증가는 고사하고 1925년에는 오히려

108개관으로 감소되었다. 10년간의 국내 전쟁기에는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8년간의 대일 항전기에는 어느정도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1945에는 141개관뿐이었다. 더구나 당시의 도서관 규모는 모두가 비교적 소규모였었다. 예를들면 북경대학, 청화(淸華)대학과 남개(南開)대학 등이 서남연합대학(西南連合大學)을 구성하였으나 대일 항전에 승리했을 때는 장서가 48,000권, 국내외의 잡지약 100타이틀, 그리고 복단(復旦)대학의 장서도 불과 10만권 정도밖에 안되었다.

전국 이래 사회주의 건설과 교육사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대학도서관 사업도 점차 확대되었다. 최근

1) 경사대학당: 1888년(청·광서 24년) 북경에 창설되었다. 1900년 의화단사건(義和團事件) 당시 북경이 8개 연합군에 점령당하였을 때 부득이 휴교 조치하고 1902년에 다시 개교, 1912년에 북경대학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름. 일반적으로 중국의 근대적인 대학의 시초를 경사대학당이라고 한다.

40년 이후 크고 작은 좌절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성과도 있었다. 특히 “문화혁명”이후 개혁과 개방의 대원칙에 준하여 대학도서관 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대학도서관은 1949년에는 불과 132개관이 있었으나 1988년에는 1,075개관으로 증가하였고, 장서수에 있어서도 1949년에는 794만권이 었으나 1988년에는 4억권 가까이 증가하였다. 도서관의 면적은 1949년의 20여만 평방미터였으나 1988년에는 300여만 평방미터로 증가하였다. 또 도서, 잡지의 연간 구입비는 1949년에는 100여만원(元)이였었으나, 1988년에는 2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도 전국 초기(1955)에는 3,000여명 이였으나 1988년에는 4만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다음에는 신중국의 대학도서관 사업의 발전상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간단히 회고하기로 하겠다.

### 1. 곡절발전기

전국 초기라고 하는 것은 “문화혁명”이전의 17년이다. 대학도서관 사업의 곡절(曲折)된 전진과 발전의 단계였었다. 이 시기의 대학도서관은 1949년의 132개관에서 1966년의 535개관으로 발전하였다. 주요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중국의 대학도서관을 개량하고 내용이 외설하고 황당무계한 도서, 잡지를 처분하고 장서내용을 개변하였다.

2) 국가의 교육방침을 관철하고 수업과 과학연구를 조화시켜 많은 도서, 잡지를 제공하고 신중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과 공헌을 했다.

3) 대학도서관의 업무관리에 대해서 정리하고 과거의 낡고 번쇄한 규칙제도를 개혁하여 과학적인 관리를 강화하였다.

4) 제1회 대학도서관 업무회의를 소집하여 전국 대학도서관에 대해서 거시적인 지도를 했다. 1956년 중앙은 “과학을 향하여 진군하라”는 호령을 발표하고 당시의 고등교육부는 주옥래 총리의 “아직 대군은 도착하지 않았지만 식량과 사료는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지시하에 전국 대학도서관 업무 회의를 소집하여 인민 중국의 대학도서관의 업무 경험을 총괄하여 교류하고 <대학도서관 업무 시행 조례(초안)> 등의 문서를 기초하여 대학도서관 사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전국 초기의 17년간은 대학도서관 사업의 발전이 결코 순풍에 돛을 단것과 같은 사항은 아니었다. 1957년의 반우파투쟁, 이에 수반하여 출현한 심각한 “좌(左)”경의 착오, 또한 소련 전문가의 철수, 더우기 3년 계속된 자연 재해를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사회주의 건설 사업도 좌절하여 대학도서관 사업의 발전도 이런 여건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항의 구체적인 모습이 1958년의 초조맹진(焦躁猛進)이다.

대학도서관은 1957년에 229개관이 급격히 증가하여 1960년에는 1,289개관이 되고 그 결과로서 재원이 고갈되고 어떤 대학원에서는 학생의 「조학금(助學金)」 조차 전혀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더우기 도서구입비도 없었기 때문에 1963년에는 부득히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407개관으로 축소되었다. 이와같은 급격한 증가와 축소는 대학도서관의 도서, 잡지의 중복 구입과 대량의 중단을 가져옴으로서 대학도서관 장서의 계통성과 정합성(整合性)을 혼란시켰다. 특히 중심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계약 정지는 고등교육 사업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에는 “좌”의 사조의 충격을 받고 규칙제도의 “대파대립(大破大立)” 즉 과감하게 낡은 것을 버리고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건설한다. “선파후립(先破後立)” 즉 먼저 파괴하고 뒤에서 건설 한다는 강조하여 과학적인 관리에 등을 돌리고 관리제도를 파괴했다. 대부분의 도서관은 방법과 효과적인 어떤 수단도 강구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도서관 전체의 장서를 개가제로 실시하여 대학도서관 사업에 있을 수 없는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게 했다.

### 2. 수난파괴기

「문화혁명」의 10년은 대학도서관이 동란과 큰 재화, 유린과 파괴가 조우한 10년이다. 대학도서관은

1966년의 434개관에서 증가보다 오히려 감소하여 392개관이 되었고 이 때까지는 중국의 대학도서관 사업이 축소되어 세계의 선진국가의 수준과의 격차는 「문화혁명」이 확대시켰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화혁명」 기간중에 추진된 극좌노선은 대학도서관 사업에 다음과 같은 중대한 파괴를 가져오게 하였다.

1) 대학도서관의 성격을 왜곡하고 계급성을 그의 중요한 속성에서 더욱 전진하여 유일한 속성으로 하여 대학도서관을 소위 무산계급 독재의 도구와 계급투쟁의 무기로 변화시켰다.

2) 대학도서관의 임무를 곡해하고 무산계급의 정치를 위한 봉사를 강조하여 노동자, 농민, 병사에 대한 봉사를 도서관의 주요한 임무로 하므로서 도서관이 수업이나 과학연구를 위한 지식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를 사실상 부정했다. 그리하여 모든 무산계급 정치를 위해 노동자, 농민, 병사를 위해서 특히 무산계급의 전제(專制)를 위해 계급투쟁을 위해 모든 것을 타도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3) “쌍백(雙百)” “양용(兩用)”의 방침을 부정했다. 장서의 구축에 있어서는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오(百家爭鳴)” [=상백]과 “고위근용(古爲近用)”, “양위중용(洋爲中用)” [=양용]의 방침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외국의 도서·잡지를 도입하는 것을 “양노철학(洋奴哲學)”, “숭양미외(崇洋媚外)”, “파행주의(爬行主義)”라고 중상하고 장기 연속구입 계약을 하고 있는 외국어의 도서·잡지를 취소하고 역사 문화유산과 국내외의 다른 학파, 다른 시점의 학술적인 저작을 전부 봉(封), “자(資)”, “수(修)” [=봉건(封建), 자본(資本), 수정주의(修正主義)]의 “흑화(黑貨)” [=반혁명적인 것]로서 일률적으로 독초(毒草)라고 판단하고 전부 금지하고, 봉쇄하여 심할 경우에는 소각까지 하였다.

이런 결과 많은 도서관에서 「문화혁명」 이전의 출판물은 마르크스, 레닌의 원저서와 모택동의 저서를 제외하고 전부 봉쇄하여 독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문화혁명」 기간에 출판된 모범국과 소위 반동사상이나 반동적 인물을 비판하는 “혁명대비판”

등의 저작물만이 남게 되었다.

4) 도서관의 과학적 관리를 파괴했다. 다년간에 걸쳐 제정하고 준거하여 실효를 거둔 규칙 제도를 자산 계급적 또는 수정주의적이라고 보고 사리에 어긋난 비판을 가하고 혹은 제멋대로 뒤집어 놓으므로서 이미 실천에 의해서 검증을 얻은 관리 체제나 업무규칙, 목록체계, 근무계통 등을 흐트러지게 하고, 파괴하여 혼란을 초래하게 하였다.

5) 대학도서관의 봉사 사상에 이질성을 혼합하였다. 그 때까지 장기간에 걸친 사상정치 활동을 통하여 육성되어 왔고, 성심성의로 교사와 학생을 위해서 봉사하고 백방으로 전심전력한 수업과 과학연구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훌륭한 사상과 태도가 왜곡되었다. “모든 것을 독자를 위해서”라고 하는 봉사의 구호는 계급을 초월하였으며 더우기 원칙적으로는 반혁명 수정주의적인 구호라고 하고 봉사사상의 혼란을 초래했으며 전문직원도 이로 인하여 말려들게 되어 무실(無實)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

6) 대학도서관의 전문직원 조직을 유린하였다. 도서관 전문직원은 비판과 투쟁의 대상이 되어 부당한 공격과 박해를 당하여 많은 전문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지방으로 보냈으며 농촌, 농장, “五七” 간부학교 등에서 노동개조라고 하는 “접수재교육”(재교육을 받아드리는 것)을 받으므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도서관 전문직원의 조직을 파괴하고 전문직원의 적극성을 좌절시켰다. 특히 대학도서관 전문직원의 중핵적인 인재에 심각한 결빙상태를 초래하게 하였다.

요컨대 “문화혁명”의 암흑통치는 대학도서관으로 하여금 정체, 후퇴, 혼미상태로 만들었다. “문화혁명”은 대학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백해무익하였으며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부정해야 한다. 이러한 심각한 역사적인 교훈에서 “문화혁명”기간의 도리에 벗어난 행동 극(極) “좌(左)”의 이론과 사상, 방법과 정책을 진지하게 받아드리고 영원히 명기하여 이러한 사건의 역사를 다시금 재연되기를 허락하였서는 결코 안된다.

### 3. 건강발전기

“문화혁명” 이후 대학도서관 사업은 신속하게 회복하여 발전했다. 중국공산당 제11차 대표대회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11차 3중전회: 11次3中全이라고 약칭함)가 개최된 이후 개혁, 개방의 총방침의 지도하에 중국은 전고미증유의 새로운 역사발전의 시기에 돌입하였다. 교육부는 1981년에 제2회 대학도서관 업무회의를 소집하여 전국 이래의 정반양면(正反面)의 경험을 총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대학도서관 업무 조례>(약칭: 업무조례) 등 정책적인 의의를 가진 조문을 정하여 전국 대학도서관 업무위원회(중국에서의 약칭: 전국고교도공위: 全國高校圖工委)를 결성하였다. 이 회의로 하여금 대학도서관 업무 발전사 중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1987년 국가교육위원회는 또다시 제3회 대학도서관 업무회의를 소집하여 정책문서에 대해서 새롭게 심의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교육기능과 정보 기능을 강화하는 운영 방향을 명백하게 하였다. 교육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중국에 퍼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회의에 의한 추진으로서 대학도서관 사업은 전체로서는 역시 많이 전진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1976년의 392개관에서 1988년에는 1,075개관까지 이르고 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정돈을 회복하고, 기초를 강화하고, 업무를 개선하고, 관리수준을 제고시켰다.

11차3중전회 이후 발란반정(撥亂反正)(란을 수습하고 평상으로 되돌아 간다)을 거쳐 사상상, 이론상 “문화혁명”기에 왜곡되었고 뒤집어 놓은 대학도서관의 방침, 정책과 성격, 임무 등을 새롭게 확립하고, 조정하였다. 업무중 “좌”의 피해와 영향 등을 철저히 제거하므로써 대학도서관으로 하여금 정돈을 회복하고 기초를 강화하고 업무를 개선하고 관리를 향상시키는 등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또한 분명하게 효과가 있었다.

이의 중요한 업무는 장서를 정리하고, 낡은 도서·잡지를 제거하고, 장서의 구성을 연구하고, 장서의 질과 양을 개선하고, 복본을 적절히 감소하고, 문헌 재심 제도를 개설하였다. 문헌은 때를 놓치지 말고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기준에 의한 관리를 실시하고 표준목록법을 보급하고 분류 및 목록편찬의 표준화와 건전한 목록체계를 계속 실현하여 장서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또한 독자에 대한 봉사체계를 확립하고 정상화하여 개관시간을 연장(이미 매주 평균 70시간 가까이 하고 있다)하고 축차개가열람(逐次開架閱覽)을 실행하여 보급하고, (도서·잡지의 개가는 이미 전장서 책수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장서의 이용률을 높였다. 규칙제도의 각 항목을 제정 확립하고 직무의 책임제를 도입 「우화조합: (優化組合)인사관리법의 일종임」이라는 방법을 채용하여 인원배치를 개선하고 목록관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관리 개혁을 실행하였으며 격려의 메카니즘을 운용하여 근무요원의 적극성을 발휘하였다. 이와같은 일련의 업무는 실효를 견고하고 독자의 환영을 받고 있다.

2. 도서관법제의 제정을 촉구하고 대학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례와 규정을 공포하였다.

법제의 제정은 도서관 사업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이며 또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도하고 추진하는데 유력한 도구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함으로 법제에 의해 대학도서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보증하는 것이다. 최초로 중국에서 기초한 대학도서관 조례는 1956년 제정의 <대학도서관 업무 시행 조례(초안)>였으나 이것은 단지 “초안”에 불과하며 정식 문서로서 공포된 것은 아니다. 1981년 제2회 대학도서관 업무회의에서 교육부는 <업무조례>를 시달하였다. 이것이 중국 제일의 구속력과 권위성을 갖춘 문서이다.

그 후 1987년의 제3회 대학도서관 업무회의는 거듭하여 <업무조례>를 개정하고 <대학도서관규정>(약칭: 규정)이라 개정하여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또다시 통달(通達)하였다. 이 두가지의 문서는 모두 입

법부가 공포한 정식의 법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구속력과 권위성을 가지고 있다.

〈업무조례〉와 〈규정〉은 총괄적으로는 건국 이래 장기간에 걸친 실천과 외국의 경험을 참고로한 기초 위에 제정된 것이다. 두가지의 문서는 똑같이 제1조에는 대학도서관의 성격, 기능 및 지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학도서관은 학내에 있어서 문헌정보의 센터이고, 수업과 과학연구에 봉사하는 학술적인 조직이다. 그 업무는 수업과 과학연구를 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이와같은 치밀한 규정은 전국대학도서관의 건설과 발전을 위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더우기 이 문서는 대학도서관의 일련의 중대문제 예를들면 관리체제와 조직기구, 근무요원과 경비, 관사와 설비 등에 관하여 적절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규정〉은 〈업무조례〉보다 한층더 대학도서관의 교육기능과 정보기능 및 전체적인 건설의 지도이념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이것은 대학도서관의 근대적인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망령적(網領的)인 문서이며 또한 대학도서관사업 발전의 기초를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 3. 거시적 관리강화, 하나의 유기체로서 체계적이며 전체적인 건설 촉진과 자원공유의 계속적인 실현

각 대학도서관은 상호 연대하는 하나의 종합체이며 대학도서관 전체의 근대화를 실현하고 자료 공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적 관리를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1981년 전국대학도서관 업무 위원회가 성립된 후 각성, 각자치구, 직할시의 대학도서관 업무 위원회도 뒤를 이어 성립하였다. 1987년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재 및 도서정보관리 사무실을 설치하였고 1989년 국가교육위원회의 기구 정비 이후는 그 사무실과 장비국(裝備局)를 통합하여 조건장비사(條件裝備司: 국가교육위원회의 하부기구)로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기구 설치의 체제상 전국의 대학도서관을 통합관리하고 통일된 계획을 실행하고 거시적으로 지도하고 분업으로 하면서 협력하고 그

리고 전통적인 분산할거(分散割據)와 개별처리라고 하는 후진적인 국면을 타파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계획을 가진 전체적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길을 터 놓았다.

많은 지방에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큰 규모의 구를 포함한 횡적 방향의 연계협력을 계속 전개, 도서관 상호대차, 상호열람, 복사협력, 공동대출권 및 열람증의 발행, 종합목록의 편찬, 도서·잡지의 협력수집, 또한 각 도서관간의 간부직원의 양성강습 등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가능성있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1987년의 제3회 대학도서관 업무회의에서 〈전국 대학도서관정보사업 “七五” 계획의 요점〉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대학도서관이 전체적인 건설을 진행하기 위한 지도적인 문서이며 이것이야말로 1990년대에 전면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한쪽의 이상적인 청사진을 그린것이라고 하겠다. 전국 대학도서관정보 업무위원회는 계획의 요점에 근거하여 이미 문헌자원의 조사와 평가연구에 착수함과 동시에 학문분야별의 문헌정보센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센터는 문헌수집상 핵심과 방패 역할을 하고 업무상에서는 학술연구와 조언 지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며 근대적인 네트워크의 건설에 있어서는 그 시스템의 골격적인 역할을 한다.

센터의 설치는 대학도서관정보 사업의 전체적인 건설의 중요한 스텝이며 올바른 조치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도서관정보사업의 전체적인 효과를 높이며 대학에 있어서 도서관정보 자료의 공유 보증 태세의 형성을 추진하고 자료 공유의 목표를 유효하게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 4. 새로운 봉사영역의 적극적인 개척과 도서관교 육기능 및 정보기능의 강화

1981년과 1987년의 2회 소집된 대학도서관 업무회의는 대학도서관의 봉사영역 확대와 교육기능 및 정보기능의 발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각 대학도서관은 각각 도서관의 조건에 근거하여 항상 봉사항목을 확대하고 각종 형식의 문헌복사(정전식, 사진, 마이크로필름 등)로부터 시청각 등의 봉사를 전개한다.

도서관의 교육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수업과 과학연구에 협력하고, 각종 참고서목록, 지정도서목록, 추천서목의 편찬은 물론 각종 강좌, 보고회, 서평 및 도서·잡지 전시열람 등의 활동을 한다. 많은 도서관은 독자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열람통계의 분석이나 열람경향에 대한 연구, 독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열람지도를 실시한다. 이 밖에도 독자들에게 도서·잡지에 대한 애호정신을 가지도록 하는 일과 규칙제도를 준수하도록하는 교육도 진행하여 도서관으로 하여금 명실상부한 정신문명 건설의 진지(陣地)가 되고 있다.

도서관의 정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1987년 대학도서관 업무회의는 대학도서관 업무위원회로 개편하여 대학도서관정보 업무위원회(중국에서의 약칭: 전국고교도공위:全國高校圖工委)라고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각 지방의 대학도서관 업무위원회도 거의 대부분이 대학도서관 정보업무위원회라고 개편했다. 회의에서 채택된 <규정>과 각대학의 도서관위원회를 개편하여 도서정보위원회라고 하였다. 이 결정은 도서관업무의 정보화를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체제상 도서정보업무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였다.

오늘 현재 전국의 대학이 설립한 정보조직의 대부분은 도서관에 귀속되어 반수 이상의 대학에서는 도서관을 기지로 <문헌검색 및 이용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학생의 정보에 대한 인식을 배양하기 위해 학생이 자학자습과 연구의 능력을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원조하여 뛰어난 영향과 성과를 얻고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은 저학년의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도서관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며 고학년의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논문이나 졸업설계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과 과학연구에 협력하여 참고업무나 문헌검색, 정보의 편집 번역보도 등을 전개하며 각종의 특정주제 문헌색인이나 전문주제서목색인 등을 편찬하여 정보봉사업무를 실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5. 전문직원의 공급원을 개척하고, 근무요원의 자질을 개선하고, 직원조직을 강화한다.

「문화혁명」 이후 도서관학·정보학의 교육체제는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개혁하여 도서관전문인재를 많은 학과, 여러 수준에서 양성한다는 면에서는 독창적인 탐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저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도서관학·정보학의 정규교육은 이미 북경대학, 무한대학 2개교의 전문교육 대학에서 50개교 정도로 확대되었다.

학교운영의 패턴은 예전부터 단일의 대학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던 교육이 발전, 분화하여 이(理), 공(工), 농(農), 의(醫) 등의 대학원에 의한 다학과(多學科)형태로 되고, 교육조직은 이전의 단일 레벨의 대학 본과, 전과(專科)의 교육에서 확대되고 초급의 인재를 양성하는 중전문(中專班:校)교육과 상급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생과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2의 학위를 수여하는 쌍학위반(雙學位班)의 교육 등이 있다.

대학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각 유형, 각 레벨의 전문인재는 일단 보충하게 되었으며, 근무요원의 연령은 날이갈수록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밖에 재직중인 대학졸업생의 전문교육반과 대학도서관장 훈련반의 개설계획도 마련되어 있으며 전문간부의 교육조직도 또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려고 한다.

요는 중국의 도서관학·정보학교육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힌 배치와 다양한 운영 형태에서 다양한 수준의 교육조직을 포함하여 풍부하면서도 효과적인 실천을 하고 있으며 한걸음 한걸음씩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도서관학·정보학교육의 개혁과 발전은 대학도서관 전문직원 조직의 안정된 공급원과 자질의 개선 등을 보장하고, 특히 대학도서관의 근대화 건설을 위해서 인재 확보와 수급을 보증한다. 통계에 의하면 1980년 전국 대학도서관의 근무요원이 17,297명이었으나 1987년에는 32,77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문대·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유자는 1980년의 38.5%가 53.6%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학도서관은 점차 도서관학·정보학전공의 졸업생

1,000여명을 채용하고 있다. 기타 다른 학과의 대학 졸업생은 3,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반수는 1년 기간의 전문교육반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 이외에 200여명의 도서관장급의 간부가 6개월간의 상급훈련을 수료했다.

#### 6. 도서관 운영조건 개선, 근대화 기술·수단의 연구와 응용, 네트워크건설에 주력

제11차대표대회 제3차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대학도서관의 관사, 경비, 설비 등의 조건은 모두 개선되었다. 1980년에는 전국 대학도서관 관사의 총면적은 약 132만 평방미터였으나 현재는 300만 평방미터나 되며 300여개의 대학에 신관이 준공되었다. 도서·잡지의 구입비는 1980년의 5,216만원(元)이었으나 현재는 약 2억원으로 증액되고 있다. 1980년에는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의 도서관만이 정전복사기(靜電複寫器)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외의 다른 시설은 전무한 상태였으나 1986년에 비로서 대학도서관 소형·마이크로컴퓨터 500대, 단말기 242대, 프린터 717대, 마이크로필름복사, 녹음테이프, 녹음테스크 436대를 소유하게 되었다. 몇몇 도서관에서는 계산기를 활용한 검색과, 계산기를 업무관리면에 사용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들면 청화대학, 북경대학, 상해교통대학, 남경대학 등에서는 모두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진전을 보여 실제의 응용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어떤 지구에서는 전자계산기의 네트워크 시스템의 연구와 실험에도 착수하고 있다. 최근 대학도서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여 개발된 것이 77건이고,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131건이다. 상해교통대학 등 몇개의 학교에서는 국제적인 기계검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6가지 방향의 성과 이외에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은 학술연구의 전개를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주력하고 있다. 전국 대학도서관정보 업무위원회가 편집하여 출판한 <대학도서관학보>는 대학도서관의 학술연구를 조직하고 추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느 지방과 부위(部委: 국무원의 하부기구인 각부 및 각 위원회를 총괄한 약칭)의 대학도서관

정보 업무위원회가 전문잡지를 창간하면 학술적인 분위기가 활발하게 되고 업무경험을 교류하며 보다 적극적이며 활성화되고 있다.

이 밖에 전국과 지방의 대학도서관정보업무위원회가 전문적인 저작, 문집, 번역문집 등을 편집 출판하거나 각종의 학술토론회, 많은 전문주제의 연구 토론회, 경험교류회 등을 소집하여 업무의 개선과 수준향상을 위해서 전력하고 있다.

개혁 개방의 시기를 종합하여 보면 중국의 대학도서관 사업의 발전은 속도, 심도, 더우기 그 범위를 불문하고 모두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있어 본 일이 없었다. 이렇게 한 시기에 얻은 중요한 성과는 대학도서관의 근대화 실현을 위해서 기초를 확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새로운 상황과 요구에 직면하여 대학도서관 사업은 여전히 부적절한 상태에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은 거리가 있다. 현재 당면한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전통적이며 폐쇄적인 도서관운영의 모델이 인간의 손발을 묶어놓았다.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소규모 농업경제적인 도서관 운영 사상이 여전히 사람들의 의식속에 있으므로 방해가 되며 전체적인 건설, 전체로서의 효과 추구, 자료공유의 실행 등 근대화를 위한 새로운 이념이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 2) 전체적으로 볼때 대부분의 도서관업무는 여전히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낮은 차원의 업무수준에 정체되고 있다. 문헌정보 자료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도서관의 교육기능과 정보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하며 도서관은 서둘러서 근대적이며 다기능적인 문헌정보 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 3) 근무요원의 자질이 매우 낮으며 레벨이 단일하여 조직이 불합리하다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며 더우기 도서관인의 지위가 낮고 다른 직업에 비교하여 대우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조직도 불안정하므로 업무의 효과적인 향상은 매우 곤란하다.
- 4) 업무 방법이 뒤떨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아직 전통적인 수작업(手作業) 수준에 머물고 있

다. 근대화의 수단에 대한 연구와 응용에 필요한 자금의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면과 인력면의 준비가 빈약하다.

- 5) 도서·잡지의 가격이 매년 대폭 상승하고 경비의 팽박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많은 대학의 도서·잡지경비의 절대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대치는 계속 하강하고 있다.
- 6) 국제간의 교류와 협력은 조직에 의해서 차이가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도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대학의 도서정보발전 사업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많은 거리가 있다.

이상의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 달려 있다. 각 레벨의 지도자에게는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관점 등이 결여되어 있다. 해결 방법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인식을 높이고, 지도를 강화하여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여 도서관 근무요원의 지위와 대우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 도서관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도서관에 필요한 사람, 재원, 물질 등의 조건을 제공하고 지원해야 만 한다.

건국 이후 40년의 발전사를 뒤돌아보면 정치·경제 정세가 대학도서관 사업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증명한다. 건국 초기에는 정국이 안정하여 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발전이 대학도서관 사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1958년의 “대약진”은 객관적인 경제법칙에 어긋나고, “좌”의 착오와 활동의 실패와 “천재인과(天災人禍)”는 사회주의 건설로 하여금 증대한 좌절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대학도서관 사업의 발전도 이에 수반하여 저해(阻害)되

고 양단(兩端)이 높으므로 중앙부가 낮아 “안형(鞍型)”의 기복 변동이 있었다. “문화혁명”에 이르러 임표(林彪)와 “4인조”가 날뛰는 시기에 정국은 혼란하고 국민경제는 대부분 붕괴되고 대학도서관 사업도 정체되어 후퇴하고 크나큰 파괴에 직면하였다.

11차3중전회 이후 경제 건설을 중점으로 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확립에 수반하여 정치 경제 정세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 대학도서관 사업은 건전한 발전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현재 중국은 그야말로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에 있으며 대학도서관의 근대화 건설도 세계의 기술혁명과 교육혁명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개혁·개방의 방침을 견지하고 전력을 다하여 개혁에 노력하면서 개혁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 정세가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곤란할 때도 있고 또 압력일 수도 있고 동력일 수 있다. 그런 가하면 도전일 수도 있는가 하면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들은 이런 기회를 소중히하여 도전에 응하고 용감하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현명하게 창조하고 진지하게 가능성을 찾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대학도서관 사업을 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만 한다. 많은 대학도서관의 근무요원은 자기의 역사적인 사명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시대감과 영광감, 책임감과 긴장감을 강하게 가지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각 레벨 교육부분의 지도밑에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인식을 통일하고 일치단결하여 분투 노력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을 발전시켜 정신과 물질과의 두개의 문명 건설 추진을 위해서 각자 자기자신에게 합당한 공헌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